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공개초청장에 바른미래당 격앙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예의없는 행동”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공개 초청장'을 받아든 바른미래당의 표정이 얼얼하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기본적 찬성 방침이었던 손학규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상황에서 소속 의원들마저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손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판문점 선언 당론 결정 의원총회에서 전날 입 실장의 '정상회담 초청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언짢았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정상회담에)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나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제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일방적으로 회견을 했다"며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남북 회 회 교류가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

“평화반대 세력 보여주려는 비열한 정치공작”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반대 목소리 ‘압도적’

황에서 사전 논의도 없이 이뤄진 이번 청와대 제안은 사실 너무 예의 없는 행동"이라며 "대통령께서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하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회 의통위 소속인 박주선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초당적으로 외교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과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사실상 수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삼권분립이 된 나라에서 국회의장단이 대통령이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수행하려 간다는 것도 법리에도 안 맞고 국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김동철 의원 역시 의총 공개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문제에 있어 이 정부가 야당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나, 어떤 정보를 준 적이 있나"라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정상회담 하나만 같이 하자',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것은 진정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평화냐 대결이냐',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미래당은 평양에도 같이 가지 않고 판문점 선언에도 반대하는 걸 보니 평화세력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걸 보여주려 하는 게 아니냐'라며 "이 얼마나 비열한 정치공작인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이날 공개발언에선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총재급 당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지상욱 의원은 의총에 참석해 "국제 공조, 유엔 안보리 제재 상태에서 (대북사업) 예산에 대해 우리가 비준을 해주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제 공조에서 우리가 탈퇴하게 되고 다가올 후폭풍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민주 의원은 "국회가 비준 대상도 아니고 비준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주게 되면 국제사회에 대해 '한국 국가가 비준했으니 제재 문제는 남북 간 문제고 대한민국 남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너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잘못된 메시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가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이은애 청문회, 野 ‘위장전입’ 고강도 검증

與 “투기 아냐” 의혹 해명

다문계약서를 작성해서 탈세했고 시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산 건물을 임대차 계약할 때 갑질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자녀 3명의 예금 자금 출처를 요구하며 장남의 증여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집회를 이어가면서도 해명 기회를 전했다. 특히 백혜련 의원은 "왜 이렇게 주 Sozi 이진을 많이 했냐면서 이 후보자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사적이익을 추구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증을 어머니께 맡겨놓았는데 (주 Sozi 이진)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 세세히 살펴볼 수 없었다. 제 불찰이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위장 전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 그 무렵에는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오 의원은 "후보자가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성인이 되고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니가 주 Sozi를 5번 옮긴 것을 누가 이해하겠나"라며 "서울맹선기 재건축조합을 시작할 즈음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고 다시 또 들어간다. 하나 빌라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5년 동안 5번, 주 Sozi를 왔다 갔다 한 것이다. 서울맹선은 대명아파트로 재건축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어떤 사적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다"며 "송구스럽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1일 진행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이어갔다. 이들은 위장전입·다문계약 사적성·상가임대갑질 의혹 등을 중심으로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이 후보자의 의혹 해명을 위한 질의로 맞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이 후보자와 청문회 준비를 도운 대법원 측 실무자들을 질타하면서 후보자 지명 철회, 청문회 거부 등의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다.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하게 돼 있다"며 "대법원에서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역시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했다. 이해되지 않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7대 인사기준 중 세 가지에 위배된다"며 "위장전입 문제에 세금탈루,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등이다. 제가 여기서 (후보자의) 선서를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대법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종 의혹들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펼쳤다.

우선 장 의원은 "저는 역대 처음으로 여성 헌법재판관 2명 시대가 실현되는 것을 기대했다. 그런데 살펴보니 안 되겠다. 정말 믿을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중독이거나 상습이다."

한병도 “정상회담 공개초청 압박아냐...응한 당 모셔갈것”

임종석 ‘공개 초청장’ 별도의 사과는 안 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를 예방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 수석은 이 자리에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동행을 요청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야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제3차 정상회담 공개초청을 '압박용'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러든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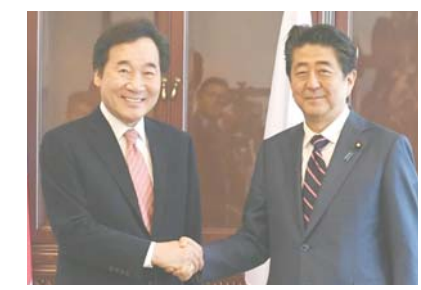
또 의장단·당대표 동행을 '대통령 수행'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번에 (평양에) 들어가는 것도 특별수행단이 아니다. 정당·국회 특별 대표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대표단이 간다는 건 대표단으로서 입장을 따로 하는 거지, 대통령을 수행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당의 이익이나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한 수석은 다만 이날 손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입 실장의 공개 초청에 대해 별도의 사과는 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한 수석에게 재차 남북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 수석은 "오늘은 사과나 이런 차원으로 온 게 아니고 저희 취지를 설명했다"며 "(손 대표는)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초청에 응하겠다는 민주당 등에 대해서는 "참석하겠다는 당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모시고 가는 쪽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총리, 아베와 회담 “北 비핵화서 긴밀 공조” 확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이날 연 국무총리는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과 한미일 3개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방침을 확인했다.

넷케이와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총리는 이날 블라디보스토크 국립연방대학에서 아베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와 북한 핵문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리는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아베 총리의 "건설적인 역할"에 사의를 표시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